



151-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Tel : 02-880-7241
Fax : 02-871-5974
<http://ece.snu.ac.kr>

Designed by 학사 '05 김영빈, 학사 '07 강권정

snu ECELIFE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소식지
2012 하반기



CONTENTS

- 02 교수 인사말
- 03 교수 인터뷰
- 04-05 대학원 탐방
- 06-09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 10-11 학부 학생회
- 12-13 봉사활동
- 14 우수논문상 수상자
- 15 봉사상 수상자
- 16 영화감상회
- 17 기자단 후기
- 18-19 커버스토리

(표지사진 : e생생 학생센터)



신임연구부학부장 인사말



이종호 연구부학부장

2012년 6월부터 전임 이창희 교수님의 뒤를 이어 전기·정보공학부 연구부학부장을 맡아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 뉴스레터를 통해 인사말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추천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신 전임 부학부장들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학부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 직책을 맡기 전에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운영 부장을 맡아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6월은 연구부학부장의 일과 운영부장의 일을 동시에 맡아 할 수 밖에 없어서 엄청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자동(전기공학부 자전거 동호인회)을 통한 산악 자전거 타기가 이러한 일을 맡는데 체력적으로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연구소 일에서 학부 일을 맡으면서, 전임 이창희 교수님으로부터 2회에 걸쳐 업무 인수 인계를 받으면서, 이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안 조직 속에서 많은 전임 보직 교수님들의 봉사로 저 자신이 편하게 살아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부에서 저의 임무는 연구, 시설/장비 및 환경에 관련된 일이고, 특히 BK 업무에 관련된 일을 맡고 있습니다. BK21 사업은 내년 2월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마무리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BK 후속 사업을 위한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속 BK 사업에 우리 학부가 순조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년을 기준으로 하루에 알짜로 7시간보다 조금 많이 원하는 곳에 집중해야 가능합니다. 매일 “나는 오늘 7시간 이상 내가 원하는 분야에 집중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여러분은 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학부의 뉴스레터는 학부의 다양한 뉴스를 알리고, 연구실을 소개하고, 졸업생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발간에 관여하는 여러 학생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많은 우리 학부 학생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을 하여 우리 학부 뉴스레터에 소개되기를 희망합니다.



신임교수인터뷰

주요약력

1994~1998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8~2000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2000~2005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05~2011	Postdoctoral Associate, EEC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1~2012	Research Scientist, EEC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2~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신임교수 김성재

Q 부임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 인생은 매우 단순히 요약됩니다. 봉천동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20년을 살다가, 포항에서 11년 반동안 대학교를 다니고, 지구 반대편 보스턴에서 6년 반 동안 연구원을 한 후 다시 봉천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미사여구보다는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 이 바로 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부임한 소감’ 입니다.

Q 교수님께서 화학공학과에서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전기·정보공학부로 오시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부 학생일때 항상 생각하고 공부했던 것은, 일반인이 보기에 저는 화학공학자라는 ‘specialist’ 이지만 화학공학자가 보기에는 다방면에 걸쳐 많은 지식을 갖춘 ‘generalist’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화학공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기공학과든, 재료공학과든, 생명공학과든, 어떠한 공학도 이제는 단 하나의 바탕으로 존재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과 직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넓은 바탕 위에 대학원 과정과 연구원 과정에서는 초미세유체역학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학문적 소양을 쌓아갔습니다. 제가 속했던 학과는 계속 변화했지만, 제가 하는 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기·정보공학부에서도 이러한 바탕을 배경으로 하나의 깊은 초미세유체역학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Q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가 “초미세유체역학” 이라고 하셨는데요. 전기공학도 입장에서 많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교수님 연구분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유체역학이라는 것은 간단한 예를 들면 컵 속의 물이라는 유체의 움직임을 살피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물이 담긴 컵의 크기가 마이크로미터나 그 이하인 나노미터 크기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전기를 걸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또 물에 염, 단백질, DNA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 초미세유체역학 또는 초미세전기수력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제한된 공간에 갇힌 물은 마치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실제로 전기수력학에서 미세채널의 분석을 전자 회로와의 상사성(similarity)을 이용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한 분야는 나노 채널에 전기장을 인가할 경우, 나노 채널 근처에서 이온 등 전하를 띤 물질을 밀어내는 척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수반되는 전기수력학적 현상을 상세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undamental한 분야와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해수에 포함된 염, 세균, 중금속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담수화 장치 및 정수기를 application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휴대가 가능한 크기로 제작이 되어 기존 공장 규모의 담수화 시설이 불가능한 후진국, 재난 지역, 군사용으로 높은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제 연구 목표 중 하나입니다.

Q 교수님의 학창시절은 어떠하셨나요?

제가 서울을 떠날 때 서울에 지하철이 4호선까지만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포항에는 시내를 통틀어 패스트푸드점이 L햄버거 가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월드컵 3번에 올림픽 3번을 보며 20대의 전부를 보냈습니다. 제가 항상 질문 받았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작고 심심한 곳에 오래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활은 그렇게 심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든, 포항공대든, 카이스트든, 이러한 학교 졸업생이면 연구나 학업의 성취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계속해서 이 분야에 있게 되면 연구 업적이나 학업의 성취도는 내세울 만한 장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외에 무엇을 ‘나’ 로 특정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연구나 학업 이외에 다방면의 ‘나’ 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과에서는 학회장, 학교에서는 학과협의회장 등 학업 이외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라켓볼 동아리, 영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플라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 단순한 취미가 아닌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 특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연애할 시간은 없었지만 솔로의 시간을 최대한 ‘나’ 를 발전시키는 곳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세에 만난 첫 여자 친구가 지금의 아내입니다.

Q 교수님은 앞으로 어떤 ‘교수님’ 이 되기를 꿈꾸시는지 궁금해요.

지난 국회 의원 선거에서 보았듯이 당선자의 70% 이상은 서울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근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들입니다. 강의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생활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기자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연구하는 교수가 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종족도 있지만, 저는 학문적 종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 방법론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 배우고 싶고 존경받는 교수님이 되는 것이 제 마지막 꿈입니다.

Q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이메일 계정은 gates입니다. 쉽게 ‘문’ 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는 처음에 문을 통과하여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은 항상 처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그 ‘처음’ 을 항상 기억했으면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문’ 을 ‘처음’ 들어설 때의 설렘과 다짐을 4년 후 학부를 마칠 때까지, 또 6년 후 박사를 마칠 때까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gates라는 이메일 계정이 초심을 다시 생각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인 것입니다.



Q. 연구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실은 10년 전인 2002년 9월에 제가 전기공학부에 부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실 이름인 멀티미디어무선통신망연구실(Multimedia & Wireless Networking Laboratory)이 의미 하듯이 4G, Wi-Fi 등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 영상 통신 등 멀티미디어통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7명의 박사, 25명의 석사를 배출하였으며, 현재 약 20명의 대학원생이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서비스 3사, 삼성전자, LG전자, HP, 인텔 등 다양한 회사들과 긴밀한 산학 협력을 수행하였고, 통신 서비스 회사들 또는 사용자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도 하고, 또 미래의 통신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수학적인 문제를 풀기도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제 프로토타입 구현 및 실제 네트워크 성능 측정 등을 수행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Q. 무선 네트워크 분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 &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 궁금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통신의 기초와 통신시스템 과목을 듣고 너무 재미있어서 통신을 전공하려고 마음을 먹고는 석사 때 무선통신을 전공하였습니다.

이 후, 박사과정을 위해서 유학을 갔을 때,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과목을 통해 네트워크라는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무선 네트워크 분야를 새로 시작하시던 당시 지도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석사 때까지 가지고 있던 무선통신의 경험과 새로운 컴퓨터 네트워크를 접목한 무선 네트워크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등장하여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은 무선네트워크 쪽에도 아주 많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통신과 관련하여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 분야에는 연구의 기회가 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통신 속도가 느린 문제, 장소에 따라서 통신이 잘 안 되는 문제,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되는 문제 등이 있겠지요.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의 일부가 되어서 현실에서 무척 많이 사용되고 있는 Wi-Fi의 성능 개선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관점, 장비제조사의 관점, 스마트폰의 관점,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표준의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4세대 기술인 LTE 네트워크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연구실에서는 5세대 무선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5세대 기술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부터 그리고 있는 아주 초기 상태입니다.

Q. 교수님께서 선호하시는 학생상은 어떤 학생인지 궁금합니다.

‘적극적인(proactive)’ 학생을 좋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적극적이지 못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교수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구할 것을 찾아서 ‘독립적으로(independent)’ 연구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무언가 연구를 시작하면 ‘꼼꼼하고 빠짐이 없이(thorough)’ 하는 학생, 그리고 자신이 하는 연구에 큰 ‘지적 호기심(curiosity)’ 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Q. 뉴스레터를 통해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전할 것을 찾아서 도전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적극적이면 좋겠다고 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또 항상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부생이라면 지금까지도 그런 도전과 발전을 많이 경험했겠지만, 자신의 삶에 있어서 도전과 발전을 멈추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주어진 능력은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자세와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또 나이와 무관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생이라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국내용으로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세계를 상대할 때 영어가 bottleneck이 되면 안됩니다. 우리 학부생들 중에 영어에 대한 노력을 너무 안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서 특별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과 함께 일하는 법, 특히 남들과 일할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자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고, 남들과 일할 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Q. 학부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궁금합니다.

김성원 학부 시절 전공공부와 더불어 다른 분야의 수업도 들어보면서 전기전자공학이 제 적성에 잘 맞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가 되고 싶었고, 전기전자공학은 특히 연구분야가 광범위하고 공부할 것도 많기 때문에 학부 4년 동안의 공부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연철 학부 시절 통신, 회로, 반도체, 컴퓨터 등 전기공학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특별한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 가지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학부 4학년 때 데이터 통신망의 기초 수업을 듣고 졸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통신과 네트워크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지금의 연구실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준 일반 고등학교를 나온 저는 항상 이론만을 배웠고,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 때 보다는 자신이 설계한 실험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이론을 통해 그 실험결과를 예측한 후 선생님께 검증받았을 때의 그 쾌감을 즐기곤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수험 공부는 의무감이 들고, 크게 재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걸고 대학에 들어왔지만, 솔직히 실험 과목들에 대해 많이 실망했습니다. 대학에 오면 실험 수업에서는 내가 실험을 설계한 후 보고서를 자유롭게 형식으로 써서 그것을 조교님들이나 교수님들께 피드백을 받아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도 하거나, 조금 더 밝혀낼 부분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이론들을 찾아 공부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정말 그 이유 때문이었는지 다시 실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수업에서는 누구나 다 같은 방법으로 피드백을 기대할 수 없었고, 같은 동아리의 석사, 박사형들에게 물어보아 그 갈증을 가끔씩 해소할 뿐이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원하던 방식의 수업에서 실망을 하였고, 꼭 자기주도적인 실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는 연구를 해보고 싶었기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원하는 생활과 근접하게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연구실 사람들이 친절하고 특히 서로 친한 것이 매우 좋습니다. 공부를 같이 할 친구들이 있는 것은 자신의 공부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합도 잘 되고 서로 친한 분위기의 이 연구실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Q. 연구실의 특색이나 장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원 우리 연구실만의 특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배배간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며 벽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함께 연구를 수행할 때 박사과정 선배가 지시하고 석사과정 후배가 따르기 보다는, 함께 방향을 결정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루어지며 그러한 과정에서 선배로부터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영어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셔서 매주 있는 연구실 세미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영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연구실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십니다.

신연철 저희 연구실에서는 무선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연구합니다. Wi-Fi, LTE 등의 현재 서비스 중인 무선 네트워크를 개선시키는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가 정말 빠르게 실제 네트워크 솔루션에 반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주제로 삼아 연구할 수 있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연구실의 특색이며 장점입니다. 또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연구하며 연구실 멤버 전원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축구를 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화합을 도모하는 것 또한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박태준 MWNL의 좋은 점은 바다로 목욕을 삼고 하늘을 종이로 사용한다하여도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 제 머리 속에서 가장 감명 깊은 점을 두 가지 들자면 대화를 하려 하시고 연구실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노력을 하시는 교수님이 있다는 것과 연구실 사람들이 서로 친하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일주일에 한번씩 랩 세미나를 열고 연구실 사람들끼리 자신이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서로에게 알려주어 서로의 연구에 힌트가 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십니다. 그 후에 점심을 같이 하시는데, 교수님이라서 뭔가 무거운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도 어울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보이는 주제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가끔씩 농담도 하셔서 다가가기 쉬운 느낌을 받습니다. 연구실 사람들이 서로 친하다는 점 또한 매우 큰 장점입니다. 위에서도 썼다시피 저희 연구실 사람들은 학문은 물론이고 다방면에 뛰어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띄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등 인간관계를 잘하는 학생들이 꽤 있고, 덕분에 저도 그러한 리더십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제 연구실 지원동기 중에서 Top2에 드는 것이니,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Q. 대학원 생활을 하며 학부 시절과 비교해 많이 달라진 부분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성원 연구와 학과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연구와 학과 공부가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연구주제, 혹은 기업&정부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업을 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야 할지를 몰라 헤메었습니다. 또한 학부 때는 당장 해야 할 공부나 일이 없을 경우 휴식을 취하지만, 대학원생은 연구실에 항상 출근하여야 하므로 연구실에서의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보낼지 고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해야 할 일이 쌓여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연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공부할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전까지 주어진 문제만을 해결해오던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탓에 처음에는 어떤 논문을 읽고, 어떤 연구를 해야 할 지 방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전공 공부 외에도 영어, 발표, 글쓰기 등 자신의 연구를 주장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힘들었고,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준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열정적인 연구 생활을 하게 되었고, 다시 삶을 사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행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사귀고 싶은 친구들만 사귀었기에, 거의 저와 비슷한 성향의친구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실에 오니 그동안 저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관계도 지속해보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연구실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주어서 친해지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Multimedia & Wireless Networking Laboratory(MWNL)에 우수한 인재가 많은 것인지는 몰라도, MWNLer들 중에는 학문 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괴감을 느꼈지만 이것이 좋은 자극이 되어 제가 좀 더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성원 대학원 진학이 망설여지신다면 "일단 가보자"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진학을 늦추더라도 학부생으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연구실을 결정하고,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많이 수강하고 진학하시는 게 이후 석·박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부과정에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보다 이 과목은 내가 앞으로 수 년간 하게 될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더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연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많은 고민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떤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 기회 또한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정보공학부 소식지, Open Lab, 전공하나 등 다양한 곳에서 연구실 소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또한 연구실에 문의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박태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연구실에 자신을 잘 이끌어 줄 사람이 있는가란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집단생활을 해보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자신을 믿고 상처주지 않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금방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게 되지요. 이런 인간관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멘토가 되어줄 사람을 찾는 것은 연구실 사람들의 성향과 많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운이 좋게도, MWNL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조언을 받으며 빠르게 연구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연구실에 가서 좋은 멘토를 찾고 즐거운 Lab Life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Q. 전기·정보공학부 학우들에게 SK플래닛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SK플래닛은 플랫폼 Biz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차별적인 기술력을 통해 Global 시장으로 나아가고자 2011년 10월 SK텔레콤으로부터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입니다.

‘Planet’이라는 이름에는 항상 새로움이 넘치는 미지의 꿈이 담긴 커다란 세상을 고객과 함께 만들며, Platform Biz를 기반으로 상생의 Ecosystem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Platform + Networking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SK플래닛은 Open Platform을 기반으로 App스토어, LBS, New Media, 커머스 & 광고, Comm. & SNS, 음악 등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T store, T map, hoppin, 11번가, T ad, Melon, 싸이월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여러분들도 친숙한 ‘틱톡’을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SK플래닛은,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며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국내외 플랫폼 사업을 선도하는 No.1 Global Platform Innovator가 될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도전과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여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Q.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멘티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들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저의 대학 동기인 박세웅 교수님께서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후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돌아해보면 대학 시절 고민을 누군가와 같이 나누고, 겪어보지 않아 알 수 없는 사회나 직장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더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의 두 아이를 둔 아빠로서 또한 여러분의 학교 선배일 뿐 아니라 인생의 선배 입장에서, 정답은 아닐지라도 내가 겪은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입니다.

대학시절을 보내며 겪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불확실함은 반대로 여러분들의 무한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기성세대들에게는 부러운 부분입니다.

가능한 많은 도전과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아니라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Q. 선배님의 학부시절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980년도에 입학했으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대학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시절은 군사정권시기로 사회적 혼란이 매우 심한 시기였고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공학 전공이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 학문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부전공을 하기로 결정하고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 접했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Insight가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부 외에도 우리나라 산과 바다 방방곡곡을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여행이 지금처럼 자유로운 시절이 아니라 세계 곳곳을 다녀보진 못했지만,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자연을 접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절 함께 여행하며 우정을 다진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스승은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생각의 다양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Q. CEO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기업을 경영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언제나 사람이 최고로 중요한 자원입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지요. 가장 큰 스승은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동료들 비롯해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그들과 교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Core Value의 첫 번째가 Human일 만큼 그 무엇보다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의 생각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핵심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행을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한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세계를 마음에 품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시야를 넓히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나라의 구분이 무의미한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된 말 그대로 Global시장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시장과 사람, 그리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Perspective는 Global 인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러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나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삶과 생각의 다양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전 제 멘토이자 텔레칩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서민호 선생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사실 멘토링 발대식 때 뵈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맛있는 저녁식사와 함께 멘토님께서 이야기를 잘 이끌어주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단순히 학교에서 전공서적으로 공부만 했다면 알 수 없었을 이야기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현재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밤늦게까지 멘토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몇 가지 조언도 해주셔서 그 동안 기다린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멘토링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져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 09' 강상우



학부 08' 이문현

올해 초 복학하여 공부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찰나에 동문멘토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셔서 어떤 분의 멘티가 되면 좋을까 하다가, 축구라는 같은 취미를 즐기시는 윤선근 변리사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만큼 성격도 시원시원하셔서 첫 발대식의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방 풀렸고, 발대식 후엔 가볍게 맥주도 한 잔하면서 허물없는 대화부터 멘토님의 대학(원) 시절, 전기공학도로서의 진로문제 등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때에는 현재 근무 중이신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초대해주셨고 특히 기술과 특허, 법률 다루는 일을 하시는 만큼 법조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기·전자산업에 대한 경향이나 비전까지 제시해주셔서 더없이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변리사님처럼 멋진 선배로서 동문멘토링에 참여할 날을 꿈꾸어보며, 이렇게 의미 있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전기·정보공학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기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텔레칩스' 대표이사로 계시는 서민호 선생님과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잦은 중국 출장으로 한국에 머무시는 기간이 짧으시면서도 저희와의 멘토-멘티 모임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셨기에 송파구에 위치한 회사에 직접 찾아뵈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일을 대하시는 멘토님의 태도였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그간 발명하신 제품·기술들과 현재 몰두하고 계신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멘토님의 모습에서 회사의 최고 지위권자라기 보다는 순수하게 공학을 사랑하는 공학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며 전공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진 저녁식사와 술자리에서 멘토님과 마음 속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점도 정말 좋았습니다. 성공한 창업자로서의 밝은 면 뿐 아니라 창업을 하고 20여년간 회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힘들었던, 창업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솔직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학교생활 에피소드나 졸업 후 창업을 결심하기까지에 과정들을 말씀해주셨기에 지금까지는 잘 몰랐던 '창업'이라는 선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전반적인 진로결정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학부 10' 이창현



학생회 이야기



학생회장
조창웅 (학사 10')

“학생회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학생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학생회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굳이 정의를 하자면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허나 아직도 많은 분들은 ‘학생회’ 라 하면 정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시절엔 뜻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시위나 데모를 자주 했었고, 학생회에 몸을 담던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땐 그래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 날 아마도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때처럼 군부독재에 시달려서 억압받는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관심사 또한 많이 바뀌었죠. 아마 지금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복지와 학업으로 귀결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수업에 대한 후기를 담은 사이트에 가면 수강생들이 각자의 평을 공유하여 교수님에 따른 수업의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전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학점을 조회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학생회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회는 올해부터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울트라북, 태블릿 사용자들의 증가에 따라 노후한 30이동 내 강의실의 AP를 전부 802.11n, 채널 본딩, 5GHz 듀얼 채널을 지원하는 최신 공유기로 교체하여 쾌적한 Wi-fi 환경을 조성하는가 하면 AP 접속 암호가 각각 달라서 접속 시에 애를 먹었던 것 또한 외우기 쉽게 암호를 통일시켰습니다. e생생 앞에 비치된 휴대폰 충전기는 충전할 수 있는 기기의 수가 적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모래와 현래의 모든 컴퓨터에 Micro 5핀 케이블과 Apple PDMI 30핀 케이블을 비치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린터 쿼터 충전을 현금으로 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컬러 프린트 가격을 **장당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어 컬러 인쇄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인쇄비용의 부담을 덜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싸이월드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이 페이스북을 더 이용하는 추세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동안 클럽으로 운영되었던 각 반별 커뮤니티를 페이스북에서 그룹화시키고 주소도 통일시켰습니다.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어 학생회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방의 환경 또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방에서 학우들이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보드 게임 몇 가지를 비치하고 정보 검색용 컴퓨터 또한 구비하였습니다. 조만간 해당 컴퓨터는 TV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TV로 화면을 출력할 수 있게 하여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앞둔 학우들이나 간단한 드라마 시청, 스포츠 시청을 원하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전공하나** 기획이 있겠습니다. 이번 전공하나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2박 3일간 진행되었던 행사에 많은 학우들이 1박만 하고 돌아오거나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등 상당히 호응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일정을 조금 타이트하게 줄였습니다. 또한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품도 푸짐하게(정말 푸짐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산실에 새로 비치될 컴퓨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학우들이 불편해하시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컴퓨터에 심어질 이미지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Apple 30핀 케이블로 아이패드도 충전할 수 있도록 Ai Charger를 설치하였고 애플 제품 내부를 탐색할 수 있게 iTunes와 i-Funbox 또한 설치하였습니다. 타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삼성, LG, 팬택, HTC)들이 배포하는 드라이버도 설치하였습니다. 메일로 대용량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대용량 첨부 관련 Active X를 설치하였으며 외부 접속이 불편하고 용량이 적은 Z-drive 대용으로 N드라이브를 설치하였습니다(물론 동시에 Z-드라이브도 사용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키보드의 키 배열이 다소 부적절하여 한/영키를 누르려다가 오른쪽 Alt 키를 누르는 일이 잦은 점을 감안하여 오른쪽 Alt키와 한/영키 모두 한/영 전환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레지스트리를 수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PDF 파일을 보기 위해 사용했던 Foxit Reader를 Adobe reader로 교체하고 원활한 동영상 재생을 위해 다음 팟 플레이어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관리자 없이도 프린터 쿼터를 자동으로 충전할 수 있는 무인 입금기, 언제 어느 때나 원하는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는 olleh TV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회를 운영할 때 인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일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의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곡이 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는 여론이 많이 조성되어 조용히 지나가긴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난을 받으니 다소 당혹스러웠습니다.

맹목적인 비난도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회의 결정이 모든 학우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많은 학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분명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 겁니다. 이유가 있는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뒤에서 학생회의 결정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헐난하고 헐뜯는 것을 보면 제가 비난을 당하는 느낌이라 많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학우들이 **시설을 소중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전에 모래와 현래를 둘러보니 안드로이드 케이블 중 절반 정도가 고장이 난 것 같았습니다. 중국산이라 고장이 잘 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고장도 잘 나지 않는 아이폰 케이블이 사라진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Q.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려운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는 까닭은 대다수 학우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응원해주시는 학우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판할 사항, 건의할 사항이나 제안해주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나 담벼락에 남겨주세요.** 비판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동기나 선, 후배 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우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활동

김한솔
학사10



이도근
학사12



작년 겨울, 2학기를 모두 마치고 친구들과 그리고 선배님들과 함께 오금동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었기에 몸은 얼었고 전날 마지막 시험이었던 전자장기 시험을 본 직후인터라 마음은 황폐해져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꼭 해야겠다는 의무감에 아침 일찍 일어나 오금동으로 향했습니다. 정운찬 교수님과 하정의 교수님,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나 하게 된 일은 각 가정으로 연탄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연탄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동네를 직접 본 것도 그 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다소 놀랐습니다. 저희가 직접 연탄을 배달한 가정은 대부분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혼자 살고 계시는 집이었는데, 저희에게 연탄 봉사를 설명해주시던 봉사자께서 '이 집은 100장이요.', '이 집은 200장이요.' 라고 배달해야 하는 연탄의 개수를 말씀해 주실 때마다 한 번의 겨울을 보내기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연탄 100장, 200장을 걱정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겨울을 보낼 걱정을 해본 적이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걱정한 것 중에 과연 연탄 100장, 200장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탄을 받으신 어스 할아버지께서는 너무 고맙다며 커피를 타 오셔서 저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연탄을 배달하는 작은 일에도 너무 고마워하시며 직접 커피를 타 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처음 이 동네에 와서 정과 소박함, 감사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이는 겉모습만을 보고 놀랐던 제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봉사활동은 좋은 일이니깐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 연탄 배달이었고 그 생각엔 저도 모르는 사이 '어려운 남을 돕는다.' 라는 다소 교과서적인 의무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히려 그 분들께 정이나 따뜻함을 느끼며 봉사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생각했던 그 의무감은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봉사라는 것은 단순히 서로 함께 도우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제가 다녀온 연탄 봉사는 따뜻한 불을 줄 수 있는 검은 연탄을 주고 제 맘속에 검은 면들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감사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생이 된다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학생이 된 후 첫 학기는 학교에 적응하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봉사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그렇게 1학기가 지나 방학이 다가올 무렵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바로 전기·정보공학부 봉사활동에 관련된 이메일이었고, 그 이메일을 본 순간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 저의 친할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봉사내용이 홀몸 어르신들에 관련된 내용인 것을 보고 더욱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 당일 날 송파적십자봉사센터에 도착했을 땐 조금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12학년 신입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위축이 되었지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당당히 마음을 먹고 열심히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한 일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테이블을 세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한 덕에 금방 준비를 마쳤고, 그 후에는 이불빨래를 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덕과 노인정에 찾아가 빨랫감을 수거해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혼자 사셔서 빨래조차 제대로 하실 여력이 없으신 어르신들을 뵈니 가슴이 먹먹해져움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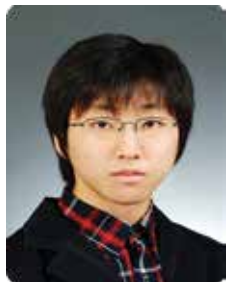
가져온 빨랫감을 발로 밟아서 세탁한 후 공원으로 가져가 햇볕에 말리는 일도 하였는데, 은근히 공원이 멀어서 힘이 들었지만 공원에 계시는 할머니들께서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셔서 힘이 났고 그 덕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이라서 그런지 위축된 바람에 봉사를 소심하게 하지 않으나 싶어 조금은 아쉬웠지만, 점점 하다보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친구들과 겨울에도 봉사활동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원에서 봉사활동 장소인 서울 송파구까지 먼 길을 왕복했지만 마음만은 전혀 지치지 않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우수논문상

로보틱스 및 지능시스템 연구실



석사10 김진수

저희 연구실 RISL(Robotics and Intelligent System Laboratory)은 크게 다체
로봇과 SLAM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학·석사 연계과정을 밟고 있었던 저는 남들보다는 더
적은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Multi-robot motion planning, Stealth Navigation,
Traffic Assignment를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졸업논문의 주제로 교통배정문제를 정할
때만해도, 그동안 해왔던 연구가 아니라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선행연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문제를 정확화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고 시간은 촉박하여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우수논문상을

먼저 석사과정 동안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이범희 교수님, 연구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연구실 식구들, 졸업하신 후에도 제 진로와 연구에 신경써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연구실 졸업생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범희 교수님 밑에서 학·석사 연계 과정을 하고 싶다고 찾아온 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석사 1년 반의 생활이 끝나고 학교를 이제 떠나야 한다니 연구실에서 지냈던 날들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발게 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평소에 로봇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더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좋은 상을 받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부 때에는 이미 확립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주력했지만, 대학원에서는 스스로 연구 주제를 정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제시한 방법을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연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고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에만 익숙했던 저는 여러 번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 연구실 형들 덕분에 무사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대학원에서의 생활은 사회에 나가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석사과정 동안 도움과 가르침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봉사상 2%의 기부
연탄배달 및 어르신돕기 봉사



학사09 김세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기·정보공학부 4학년 재학 중인 09학번 김세기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겨울과 올 여름 학부 봉사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제 활동의 시작은 작년 2학기에 친구들과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주관한 학생공동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한 번 해보는 건 어떨지에 대한 의논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일종의 친목도모와 우정을 다지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 겸 단체 활동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알아보고자 다양한 단체와 접촉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건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란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걸 직접 보니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22살, 21을 살아오면서 그때 느꼈던 뭔지 모르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제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동의 목표를 봉사활동으로 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친구들은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대한 기획을 하였습니다. 작년 겨울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학부생은 주로 지희 랄라반 09학번과 10학번 친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정익 교수님과 정운찬 교수님께서 참여해주셨고, 대학원 선배님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 분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찼습니다. 바쁘신데 참여해주신 하정익 교수님과 정운찬 교수님 너무 감사했고, 활동이 끝나고 박남규 교수님께서 맛있는 식사를 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12년 지난 1학기에 학부 봉사활동을 다시 한다고 학부에서 연락을 받았고 제가 다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커지고 활동 인원도 지난번보다 훨씬 커져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무척 컸습니다.

저는 다시 대한적십자사에 연락을 드렸고, 마침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홀몸 어르신 돕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 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활동은 학기가 끝나고 진행되었습니다. 학부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 선배님들도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 활동을 위해 학부에서는 단체 티셔츠를 제작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에는 더운 날씨에도 박남규 교수님과 이광복 학부장님, 그리고 학부 사무실 직원 분들도 참여하셔서 함께 수고해주셨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드릴 선물 포장과 국수 만들기, 그리고 이불 빨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이광복 학부장님, 김새미 선생님과 제 친구인 이영기 군이 함께 직접 포장한 선물과 국수를 어르신들께 일부 전달해 드렸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준비한 선물을 받으시면서 어르신께서는 고맙다고 계속 말씀해주셨습니다. 보람찬 활동을 해서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습니다.

제작년 2학기 때들은 논리설계 강의를 하신 박세웅 교수님과의 상담 시간에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자네 기부는 하는가?”

“아니요. 나중에 직장이 갖고 여유가 생기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음... 기부란 건 돈이 적던 많던 해야 되는 거야.

항상 2%를 기부해야 돼.”

그 당시에는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후에 연구실 인턴을 하거나 과외를 해서 벌은 수입의 2%를 봉사 단체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부를 하면서도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고, 현재도 기부를 하고 있지만 전이랑은 다르게 기부금의 쓰임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책자를 매달 우편으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과 기부는 단지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감상회

존 카터 : 바숨 전쟁의 서막



“오크 오펜 오크테일 위스- 바숨!”

전기·정보공학부 롤루반
학사 12학번 이호연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화감상회라는 행사가 개최되었답니다! 대학 오면 이런 것도 학교에서 해주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기·정보공학부만의 행사라니 더 좋았지요. 무료로 영화를 보게 해준다는 소식에 반 동기들, 선배님들과 모여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감상회의 가장 멋진 점은 평소에 듣는 강의가 달라서 자주 보기 힘든 동기들, 선배님들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문화생활과 거리가 먼 저에게 영화를 보러 갈 계기도 마련해 주었고요. ‘존 카터 : 바숨 전쟁의 서막’은 바쁜 일상에 지쳐있던 저에게 큰 활력소가 되어줬습니다.

영화 속에서 자숨은 지구, 바숨은 화성을 뜻하는데요. 영화 내용을 간략히 말하자면, 존 카터가 자숨에서 아파서 죽어가다가 갑자기 바숨으로 텔레포트해선 바숨여자와 사랑에 빠져 나쁜 악당들을 무찌르는 이야기랍니다.

저는 처음에 하늘에서 두동실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못된 바숨도사님들과 귀여운 재롱둥이 바숨강아지 ‘울라’를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로 꼽고 싶네요. 오늘도 자숨에서 과제와 퀴즈로 골치 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는 조용히 바숨으로 가는 주문을 중얼거려봅니다. 오크 오펜 오크테일 위스- 바숨!



“선로가 친해졌던 좋은 시간”

전기·정보공학부 롤루반
학사 12학번 양소운

처음에 지하철에서 ‘존 카터 : 바숨 전쟁의 서막’광고를 보고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이 영화를 무료로 보여준다고 해서 얼른 신청하였습니다.

학기 초라 동기들, 선배님들과 아직 어색했는데 함께 영화를 보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존 카터라는 사람이 어떤 동굴에 갔다가 무언가를 잘못 만져서 화성에 가 영웅이 되는 이야기인데, 영화의 설정과 괴물들이 참신했고 황당한 장면도 나와서 돈없어 웃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화도 재밌었지만 전기·정보공학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다만 아쉬웠던 점은 신입생들이 생각보다 적게 참여하였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는 신입생에게 이러한 행사를 잘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정보공학부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기자단 후기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 한번 더 홍보도우미를 맡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의지가 약해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앞서네요. 홍보도우미로 일하면서 여러가지 학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1,2학년 때는 교수님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적어서 아쉬웠는데 활동 중에 여러 교수님들과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하게 되는데 좋은 추억들을 많이 얻어 가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구요^^ 홍보도우미 활동하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니까 후배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번 소식지도 잘 나올 수 있게 정말 수고하신 장지희 선생님, 김새미 선생님께 감사드리구요, 졸업 후에도 선생님들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열정적이고 멋진 인터뷰를 해주신 김성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챙겨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고 저보다 고생도 많았을 권정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홍보도우미 경험이 있는 친구의 추천으로 복학 첫 학기인 2012년 1학기에 SNU ECE LIFE 홍보도우미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학부 행사 참여 외에 교수님 및 동문선배님, 대학원생, 학부생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후 교지를 제작하는 것이 홍보도우미의 주 활동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학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 있을 때 참가자 입장에서 줄곧 수동적으로 참여하곤 했지만 이를 보조하는 역할로 참여하게 되니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많은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수님, 선배님, 대학원생 분들로부터 평소에는 얻기 힘든 우리 학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음과 더불어 제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식견을 들을 수 있었고, 학부생들로부터는 현재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학부생들이 각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처음해보는 홍보도우미 활동이라 실수도 하고 원고를 받아 교지 제작을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게 느껴졌지만 함께 홍보도우미 활동을 한 영빈이 형, 행정실 김새미 선생님과 장지희 선생님께서 여러모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이번 학기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홍보도우미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번 학기에 겪은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엔 졸업하는 영빈이 형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사 '07 강권정



COVER STORY

2012.02 - 20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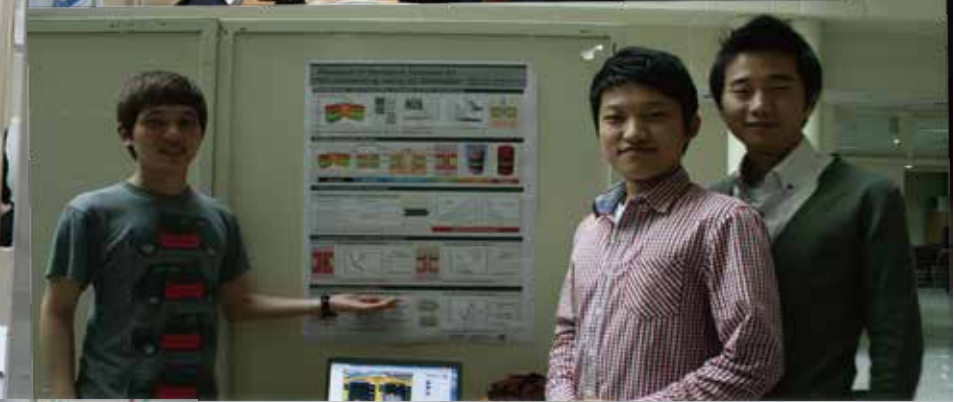
홍사상 시상식
2012.02.23



영화 감상회
2012.03.15



전기공학설계 프로젝트 발표회
2012.05.11



동문멘토링 2기
2012.03.29



홍사활동
2012.06.26

